

KITA 도쿄지부

4월
제3호

2021年4月19日

Vol. 57

주요 내용

○ 금주의 경제·통상정보

- 꿈의 연료, 수소 경쟁 :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일본
- 日자동차·소재관련 기업, EV용 전지 원료 확보에 연계하기로
- 日정부, 데이터센터 적극 유치키로

○ 금주의 주요 경제지표

- 日, 2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 증가
- 日, 기계수주 2개월 연속 하락

금주의 경제·통상정보

1 꿈의 연료, 수소 경쟁 :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일본

□ 수소 연료의 공급망 확대 경쟁의 시작

- 탈탄소 시대의 “꿈의 연료”로 기대되는 수소. 석유 제품과 같이 전 세계에서 사용되게 하려면 서플라이 체인(공급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일본의 4축을 중심으로 수소 공급망에서 경쟁이 시작되었음
- 공급망이란 물건을 「만들기」 「운반·저장하기」 「판매하기」 「사용하기」의 4가지 목적을 연결하는 체인을 말함. 수소 공급망을 넓히고 단단하게 하는 시도가 세계 각지에서 시작되고 있음

□ 3강(미국, 프랑스, 독일) + 중국, 일본

- 「만들기」에 있어 세계 3강은 미국의 Air Products & Chemicals (에어프로덕츠&케미컬스, APD), 프랑스의 Air Liquide (에어리퀴드), 독일의 Linde Group (린데그룹) 모두 산업가스 대기업임
- 프랑스의 Air Liquide (에어리퀴드)의 연간 생산량은 무게로 환산하면 약 120만t에 해당함. 일본 국내 전체 수소공급량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양임. 독일의 Linde Group (린데그룹)은 독일 동부 라이프치히의 근처에 100킬로미터가 넘는 수소 파이프라인을 가짐. 미국의 Air Products & Chemicals (에어프로덕츠&케미컬스)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남부 루이지애나주와 텍사스주에 총연장 500km가 넘는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음. 모두 수소를 성장할 분야로 예상하여 해외 진출에도 적극적임
- 이 3강을 이은 것은 중국임. 중국의 동화 에너지(장쑤성)는 프로판가스에서, 비금 에너지(산시성)는 석탄을 가스로 가공해 수소를 추출함
- 일본은 그린 수소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음. 기술력을 바탕으로한 일본의 아사히카세이 엔지니어링은 후쿠시마 현 나미에마치의 수소 관련 전용 시설 등 세계 최대급의 제조 장치를 개발했음. 히타치조선과 도시바 에너지 시스템즈도 기존 설비를 늘리고 있음

- 수소는 기체 중에서도 운반이 까다로워 「운반과 저장」하는 기술도 필요, 일본의 가와사키중공업은 호주에서 일본으로 수소를 운반하는 세계 최초의 액화수소운반선을 개발했음. 치요다화학건설은 수소와 톨루엔을 화학 반응시켜 메틸시클로헥산(MCH)이라는 액체로 만들어 운반하는 기술을 개발했음
- 운반된 수소는 「판매」하는 기업에 넘어가는데 판매 장소의 대표 주자는 수소 스테이션임. 일본의 ENEOS 홀딩스는 20년 10월 시점에서 44개의 수소 스테이션을 가짐. 한편, 중국에서는 국유석유 대기업인 중국석유화공(시노펙)이 25년까지 1000개소의 수소 스테이션을 설치할 계획을 표명함

□ 공급망 경쟁, 시장이 큰 지역을 축으로 만들어짐

- 공급망은 시장이 큰 지역을 축으로 만들어짐. 현재 일본이 기술면에서는 앞서고 있으나 다른 국가들에게 추월당할 수 있음. 수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은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정부는 효과적인 보조금이나 국제 제휴로 보급을 지지해야 함

[상세전문\(kita.net으로 이동\)](http://kita.net)

2 日 자동차·소재관련 기업, EV용 전지원료 확보에 연계하기로

- 일본 토요타자동차 그룹과 스미토모(住友)금속광산 등 55개사가 연계해서 차량용 리튬이온 전지의 국내 공급망을 정비하기로 함.
- 전지에 대한 수요가 전기자동차(EV)의 보급과 함께 급증하고 있어, 원료확보부터 재이용까지 일관체제 구축을 도모
- 이들 55개사는 「전지 스피라이체인(Supply chain) 협의회(BASC)」라는 새로운 단체를 지난 14일 출범시키고, 전지와 부재의 국내생산 확대, 리튬 등 원료의 안정 조달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해서 정부에 제안할 계획임을 밝힘.

<전지공급망협의회의 주요 참가기업>

업 종	기 업 명
비 철	스미토모금속광산, 미쯔이금속
상 사	미쯔이물산, 미쯔비시상사, 마루베니, 스미토모상사
전 지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 & 솔루션즈, 지에스뉴어스코포레이션
소 재	미쯔비시케미컬, 아사히화성, 토레이
자동차	닛산자동차, 혼다, 마쓰다

- 일본 정부는 2035년까지 모든 신차를 EV 등 전동차로만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여기에 과제가 되는 것이 전지와 그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임.
- 리튬이온전지의 원료인 희토류 등은 대부분은 해외에서 생산

<전지원료인 희소금속의 주요 생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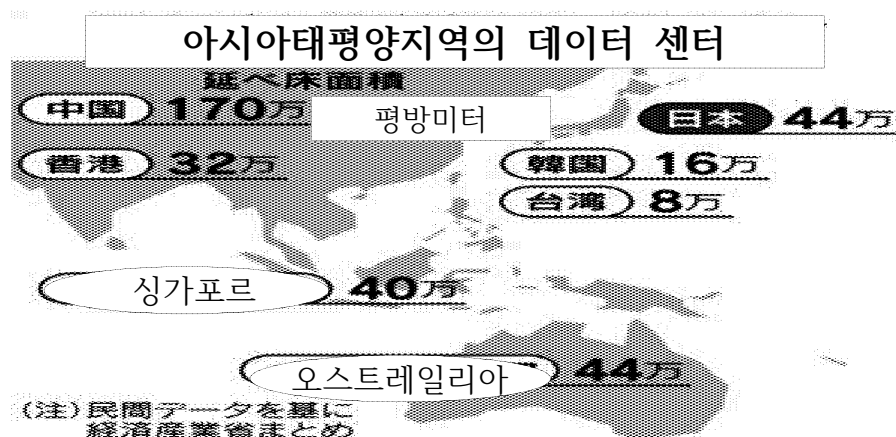
희소금속	생산국 (비중)
코발트	콩고공화국(67.9%), 러시아(4.5%)
나켈(제련후)	중국(22.7%), 일본(10.3%), 캐나다(9%)
리튬	오스트레일리아(60%), 칠레(19%), 중국(9%)

주) 코발트는 미지질조사소의 2020년, 리튬은 동 2018년의 추계를 근거로 작성.
니켈은 세계금속통계(WBMS)의 2018년 추계를 근거로 작성

[상세전문\(kita.net으로 이동\)](http://kita.net)

3 日정부, 데이터센터 적극 유치키로

- 일본 정부는 12일 개최된 성장전략회의(의장: 관방장관)에서 국내외 사업자가 일본내로 데이터센터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는 지원책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 기업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X) 추진이나 5G의 보급 등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 데이터센터의 증설의 필요성이 고조
 - 최근 LINE 서버의 해외소재로 논란이 되었던 정보의 해외유출 우려를 의식, 안전보장 관점에서라도 일본내 보존하는 데이터를 늘리려는 의도
- 일본 정부는 지자체와 연계해서 전국에 데이터센터 입지 계획을 만들어, 이 계획에 근거해서 신설하는 기업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및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 예정
 - 예컨대 원격지에 보존된 데이터는 송신지연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자동운전과 원격조작 의료용 로봇의 데이터가 리얼타임으로 전송되지 않으면 기술의 우위성이 상실될 가능성.
-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중국에 데이터센터가 가장 많으며 일본은 데이터센터의 80%이상이 東京都와 大阪府에 집중, 지진 등의 재해로 분산이 필요한 상황



[상세전문\(kita.net으로 이동\)](http://kit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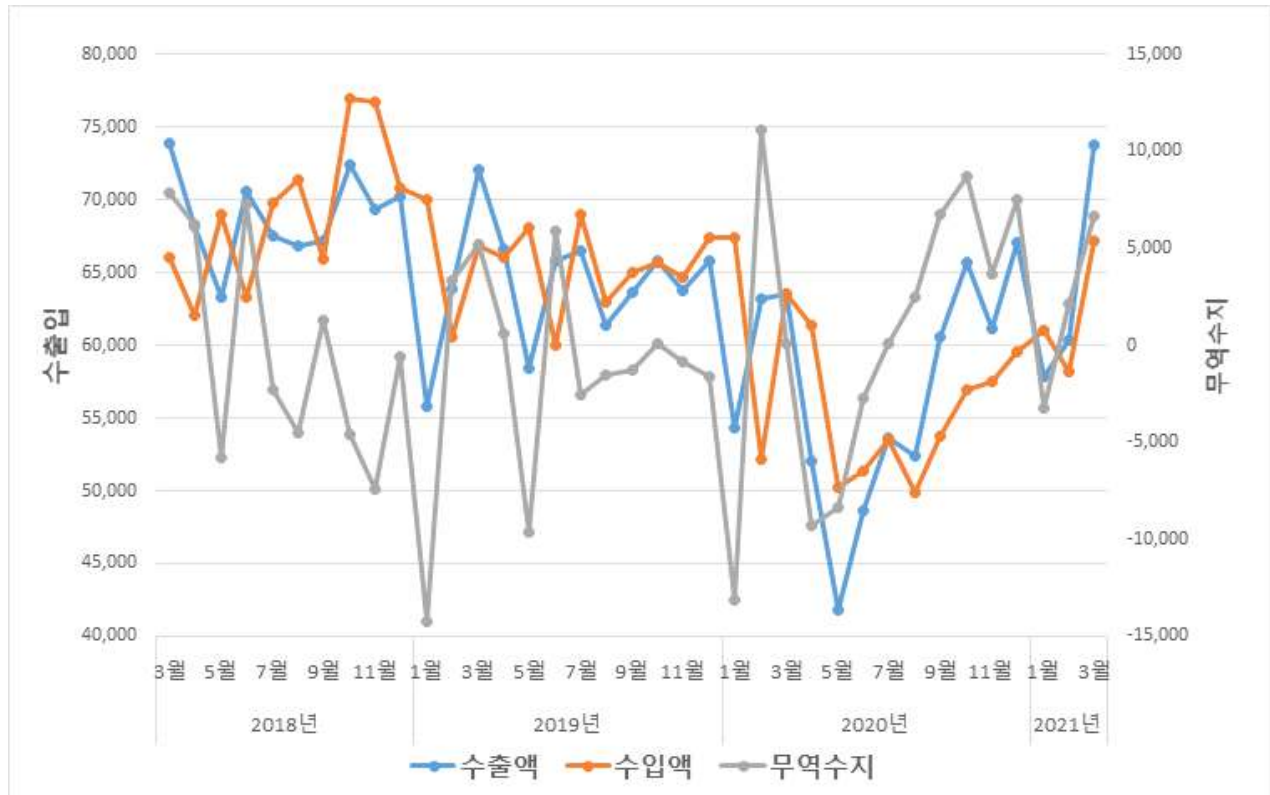
금주의 주요 경제지표

1 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증가

- 3월 수출입, 무역수지 2개월 만에 모두 증가
 - 일본 재무성이 19일 발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3월 일본의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6.1% 증가한 **7조 3,781억 엔**,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5.7% 증가한 **6조 7,144억 엔**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였음. 무역수지도 **6,637억 엔**으로 2개월째 증가세를 보임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침체에서 꾸준한 회복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 중국, 유럽 등으로의 수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3월 수출, 대 중국 수출의 뚜렷한 증가
 - 전체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비철금속이 38.9%, 플라스틱이 23.7%, 자동차11.2% 증가로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임
 - 국가별로는 대 중국 수출이 뚜렷하게 증가하였음
 - 원료품(145.8%), 비철금속(73.1%), 플라스틱(43.4%)의 품목을 중심으로 대 중국 수출이 크게 늘면서 작년 동기대비 37.2% 증가한 1조 6,344억 엔 기록, 이는 9개월 연속 증가임
 - 유럽으로의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12.8% 증가한 7,145억엔으로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 대미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한 1조 2395억 엔으로 5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임
- 3월 수입, 철광석 및 의약품의 수입이 증가세를 나타냄
 - 3월 수입은 철광석(57.0%), 의약품(27.3%)이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반면, 액체천연가스(▲ 22.8%), 원조유(▲18.4%) 등의 에너지 항목의 수입은 감소세를 보임

<일본의 최근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

(억 엔)



자료원 : 재무성 무역통계(통관기준)를 이용

<월별 일본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

(억 엔, 증감률은 전년 동월 대비 %)

	'20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1 1월	2월	3월
수출액	63,579	52,060	41,848	48,624	53,689	52,327	60,551	65,658	61,136	67,062	57,796	60,380	73,781
수입액	63,529	61,379	50,182	51,317	53,572	49,844	53,801	56,966	57,511	59,566	61,049	58,206	67,144
무역수지	50	-9,319	-8,334	-2,689	117	2,483	6,750	8,692	3,625	7,496	-3,239	2,174	6,637

자료원 : 재무성 무역통계(통관기준)를 이용

2 日, 2월 기계수주 2개월 연속 하락

□ 2021년 2월 기계수주 2개월 연속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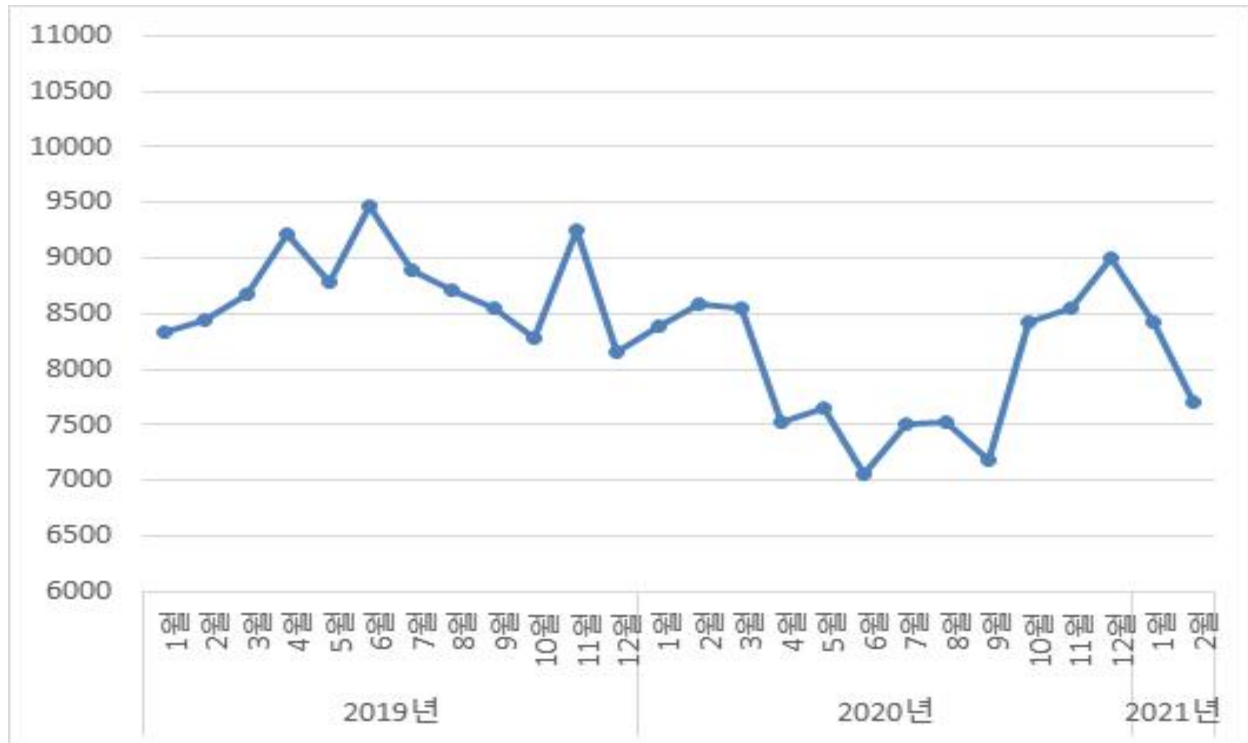
- 내각부가 14일 발표한 2021년 2월 기계수주는 민간설비 투자의 선행 지표인 선박,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 수주액(계절조정치)이 7,698억엔으로 전월대비 8.5% 감소함. 하락세는 2개월 연속임
- 2월 기계수주 수치를 수요자별로 살펴보면 민간수요는 전월대비 12.0% 감소한 8,615억 엔, 관공서 수요는 17.0% 증가한 2,571억 엔, 수출은 76.2% 증가한 1조 8,061억 엔을 기록함
- 또한, 이를 제조업/비제조업의 항목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전월대비 ▲ 5.5% 감소한 3,426억 엔, 비제조업(선박과 전력 제외)은 전월대비 ▲ 10.9% 감소한 4,227억 엔을 기록함
 - 제조업은 섬유공업(▲51.3%)과 식품 제조업(▲47.0%) 이외에도 비철금속(▲39.7%), 펄프·종이·종이가공품(▲34.9%)은 등의 수주가 현저히 감소하였음
 - 비제조업은 기타 비제조업(▲27.2%), 농림수산업(▲20.6%), 부동산업(▲18.0%) 부분의 수주가 뚜렷히 줄었음

□ 日 정부, 기조판단 하향조정 및 현황

- 선박과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의 감소폭은 지난 2020년 4월의 ▲10.2% 감소에 이어 가장 큰 폭을 기록함
- 기계수주 지표가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日 정부의 기조판단은 지난 1월까지의 “현상유지”에서 “현상유지에서 제 자리 걸음”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되었음. 하향 조정은 작년 6월 이래 8개월만임
- 지난해 10월~12월까지 미뤄졌던 기계 수주의 수요가 증가했으나 2월 기계수주의 증가로 큰 동력으로는 작용하지 못했음. 또한 세계적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과 관련된 기계수주도 조정되고 있는 추세임

<일본의 최근 기계수주 동향>

(계절조정치, 단위: 억 엔)



자료원 : 내각부 기계수주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월별 일본 기계수주 동향>

(계절조정치, 단위 : 억 엔, %)

	'2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1. 1월	2월
기계수주액 (선박전기제외)	8,394	8,585	8,547	7,526	7,650	7,066	7,513	7,525	7,193	8,425	8,548	8,996	8,417	7,698
증감률 (전월대비)	2.9	2.3	-0.4	-12.0	1.7	-7.6	6.3	0.2	-4.4	17.1	1.5	5.2	-4.5	-8.5

자료원 : 내각부 기계수주통계를 이용하여 저자작성

. 끝.